응답하라 1958, 서울대 불교학생회



서울대학교 총불교학생회는… 1958년 법대 불교학생회로 시작됐으며 1969년 총불교학생회로 다시 태어났다. 1963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을 주도했으며 대학생수도원 개설을 주도했다. 부처님오신날 행사 참여, 구국발원대회 개최(1974), 10.27법난 항거 시위 동참(1980), 야학개설(1980년대), 〈자자〉 발간, 연합수련대회 SANKITI 결성(2002~), '반야프로젝트(2017~)' 등을 이어가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8년 창립 60주년 기념축제를 개최했으며, 동문들의 에세이를 모은 서울대학교 불교학생회 창립 60주년 기념 에세이집 '가던 길 멈추고 돌아보니'를 출간했다. 사진은 4월 28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린 '서울대 동문법회 제1차 붓다포럼'에 모인 동문들의 기념촬영 모습.

道伴의 향기 서울대 불교동문회(회장 류인철-치대77)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지 2600년이 되어가고, 이 땅에 불교가 들어온 지도 1700년이 되어간다. 또 다시 부처님오신날을 맞는 이 시절에 이 땅의 불교는 지금 이 순간순간의 시대적 요구와 얼마나 가까울까.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의 불교는 어떤 모습으로 그 순간순간에 존재할 것인가. 부처님오신날을 또 한 번 맞으며 대중이 서로 주고받아야 할 가장 큰 법문이 아닐까. 그 법문의 장을 마련한 불제자들이 있다. 1700년의 역사 속에 60년의 역사를 새기고 있는 그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서로에게 화두를 던졌다.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서울대학교 불교동문회(이하 동문회) 동문들이다.

걸어온 길 60년

- 1958년 법대 불교학생회로 시작
- 1963년 대불련 출범 주도
- 1969년 총불교학생회로 재출범
- 대학생수도원 개설 주도
- 구국발원대회 · 10.27 법난 시위
- 야학 개설 · 〈자자〉 발간
- 연합수련회 결성 · 반야프로젝트

동문들 모이다

4월 28일 오후 4시 서울 사간동 법련사. 우리 불교사 어딘가에 반드시 적어야 할 법회가 열렸다. '서울대 동문법회 제1차 붓다포럼'이다. 동문회가 60주년을 기해 새롭게 모색한 것으로, 새로운 서울대 불교동문회 월례법회의 첫 법회다. 지나간 60년 위에 다시 60년을 세우는 첫 걸음이다. 법회의 의미가 가볍지 않은 것은 한국의 대학교 불교학생회의 효시인 서울대 불교학생회의 동문들이 다시 '효시'를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동문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동문회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시작했다. 어느 한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동문 모두의 이심전심이다. 동문회의 미래라는 것은 '우리 불교의 미래'와 글자만 다른 것이어서 그 모색의 시작은 '한국불교'이고 그 안에서 동문회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일은 다름 아닌 대학생불교와 청년불교의 미래다. 결론은 다시 '동문회'였다. 바로 자신들이었다. 자신들의 향상이 한국불교를 향상시키는 일 중의 하나이고, 한국불교의 향상이 우리 사회의 향상과 역시 글자만 다른 일이라는 것에 공감했다. 그리고 그 모색의 시작은 '만남'이라는 것에 모두 깊이 공감했다. 월례법회가 그 시작이다.

법회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 둘 동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앞자리부터가 다른 학번의 동문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반갑게 나눈 눈인사와 악수로 먼 학번의 거리를 지우고, 같은 공간에서 보낸 다른 시절의 기억들이 서로를 끌어안는다.

"지난 60주년 기념축제 때 선배님들 대부분 처음 뵈었어요. 그런데 처음 뵈었는데도 오랫 동안 만나왔던 것처럼 따뜻한 마음을 받았어요.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한결 같이 드는 생각은 '따뜻함'인 것 같아요. 점점 빨라지는 삶의 속도로 인해 자신 몸 하나 챙기는 일조차 쉽지 않는 삶 속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서로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우리만의 속도가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우리만의 속도에서 따뜻함이 나오고 그 따뜻함으로 인해 숨가쁜 삶 속에서도 숨을 고를 수 있는 것 같아요."

77학번 류인철(회장), 79학번 송혜진(문화예술분과장), 92학번 손인애(합창단) 법우가 법회 전 작은 자리를 같이 했다. 자리에서 가장 후배인 손인애 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손인애 법우는 동문회 합창단의 단원이다. 동문회 합창단(도로도로 합창단)은 동문회의 새로운 시그니처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합창단은 6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창단됐으나 국회 법회 초청 공연 등을 시작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 내외를 허물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합창 연습을 하면서 동문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하게 됐어요. 일단 얼굴을 본다는 게 즐거움의 첫 번째였어요. 합창 연습을 위해 매주 모이면서 각자의 생활 속에서 가져온 수다와 서로 나누는 공양들이 즐거움이었어요. 우리는 즐겁기 위해 산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동문들 만나고 나면 마음이 한 뼘이라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화낼 일도 줄고 다툴 일도 줄었어요. 각기 다른 목소리가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내고, 음성과 음성이 하모니를 만들어낼 때 '조화'라는 것에 대해 또 한 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 좋은 부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좀 더 가깝게 두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손인애 법우를 이어 역시 합창단원인 송혜진 법우가 말을 이었다. 합창단은 격주로 법련사에서 합창 연습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대학원생에서 최고 선배 학번까지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동문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 중의 하나다. 60주년을 계기로 동문회는 "세상과 공유할 가치를 찾자"는 화두를 세웠다. 6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동문회 위원들과 많은 동문들은 문화의 중요성이 절대적인 시대적 상황을 볼 때, 합창단의 음성포교는 중단할 수 없는 불사임을 공감했다. 더구나 60주년 기념행사에서 합창단이 공연한 '천수경 대합창(서울대 천수경)'은 새로운 찬불가의 전범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게 동문회 법우들의 생각이다. 〈천수경〉 원문을 거의 그대로 살리면서도 우리말로 옮긴 25분짜리 '천수경 대합창'은 시대적 흐름에 발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생각 중의 하나다. 71학번 성태용 교수가 〈천수경〉을 우리말로 옮겼고, 전문 작곡가가 곡을 붙였다. 완성된 25분짜리 '노래' 〈천수경〉을 부르고 나면 〈천수경〉 1독이다. 그런데 그 '1독'이 전혀 다른 1독이다. 멜로디 위에 뜻을 풀어놓은 경구는 그저 입을 거쳐 가는 '소리'가 아니라 뜻을 새기는 살아있는 부처님 말씀이다. 동문들을 하나로 묶는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 합창단은 4개월 동안의 연습을 마치고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천수경 대합창'을 초연했다. 그리고 지금은 하반기 창단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통도사에서 했던 첫 수련회의 일주일이 삶의 뿌리가 되었어요. 그때의 체험과 기억으로 지금까지 사는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삼천배, 새벽예불, 새벽 어둠속에서 들었던 범종소리와 북소리는 말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종범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는 저에게 있어 평생 가르침으로 남았죠."

신임 회장(제7대) 류인철 동문은 그 옛날 첫 수련회 후 삶의 많은 변화를 겪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는 의외로 간단했다. 부처님 말씀에 답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문회를 새롭게 이끌게 된 류 회장이 제일 깊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내실이다. 그리고 그 방편은 앞서도 말했던 '만남'이다. 그 만남의 이유는 '소통'이다.

C2면에 계속

INSIDE

C5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37번 사찰 가는 길

C9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5월에 새기는 가족이란 이름

C15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석주 스님